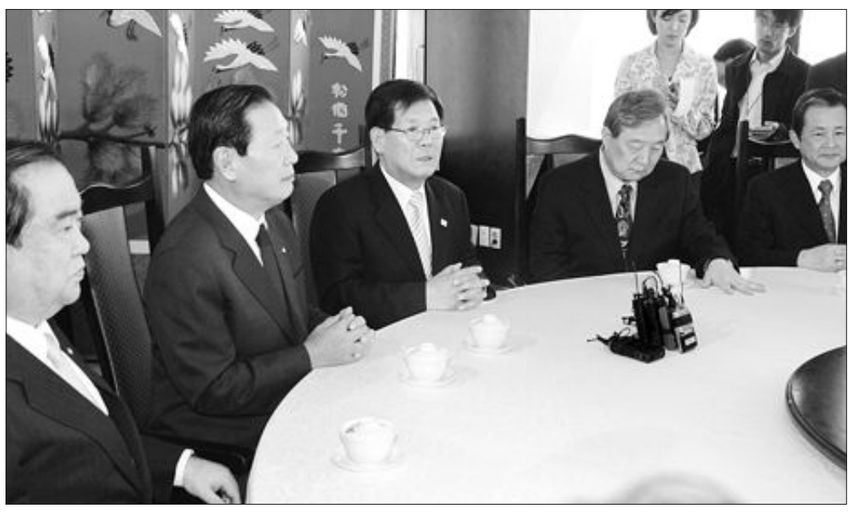
신당 경선 D-4 막판 전략

鄭 "포용의 정치로 위기 정면 돌파"
孫·李 "모바일 투표에 승부 걸겠다"

鄭 "불법선거 시비 대세 변화 못시켜"
孫 "본선 경쟁력 가장 높은 후보 부각"
李 "정상회담 성과 이을 대표 주자"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후보들이 국민경선 일정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오충일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김원기 고문, 오충일 대표, 정대철, 김덕규 고문.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파행이 일단락되면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 3인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원샷경선'을 향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불법·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서 여론의 타깃이 됐던 정동영 후보는 '포용'을 메시지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손학규·이해찬 후보는 모바일 투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정동영,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정 후보 측은 9일 경선일정이 다시 정상화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집중된 불법·부정선거 시비가 경선 일정에는 차질을 빚었을지 몰라도 대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분석이다. 특히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는 것이 캠프 내의 분석이기도 하다.

정 후보 측은 또 남은 지역 경선 중 전북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서울·경기·인천에서 뒤질지 모르는 표차를 극복하면 직접 투표 경선에서도 2, 3위와 그동안의 표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따라 더 이상 네거티브 공방전에 휩싸여 1위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기보다는 손·이 후보를 상대로 적극적 끌어안기를 시도하면서 판세 우위의 흐름을 굳혀놓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본선 경쟁력으로 승부"=손 후보 측은 경선 정상화를 계기로 민주당 등 범여권 통합의 적임자이자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막판 득표전략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분당의 주역인 정 후보와 친노 후보인 이 후보로는 범여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잠시 머물고 있는 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손 후보 측은 특히 강세지역인 수도권 지역 직접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통해 일거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와 손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의 실적과 업적으로서 비교경쟁 우위를 명백하게 보여줘 본선경쟁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 측은 나아가 14일 경선 투표일에 조직력이 막강한 정 후보 측의 동원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부정·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해찬, "정상회담 성과 이을 대표 주자"=이 후보는 '경선 결과 승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만큼 네거티브 공세는 더 이상 득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모바일 경선에서 득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모바일 투표에 다른 후보보다 먼저 뛰어든 이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받을 대표적 주자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불법·부정선거 논란을 거치면서 민주평화개혁진영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갖춘 후보는 자신 뿐임을 적극 알린다는 전략이다.

김형주 대변인은 "막판까지 정정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최선을 다한다는 기조로 간다"고, 윤호중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개혁세력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태정치의 독버섯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모바일 투표에서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鄭, 孫·李에 '3자 무한대화' 제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9일 "산상대화를 하든지 문을 걸어 잠그고 무한대화를 하든지 하자"며 손학규, 이해찬 후보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나서 심하게 상처받은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앞으로 5년간 어떤 국가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지 대화한다면 국민들은 그 진지함과 절실함을 보고 희망의 불을 찾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세웅 신부에게 (3자 회동 주선을) 부탁드렸다. 함 신부는 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분으로서 누구보다 신당 좌초 위기를 걱정하는 분""이라며 "재야 원로들도 함 신부에게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함 신부나 오충일 대표가 주선하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공멸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 공생의 길로 대전환을 이루고 대분열이 아닌 대통합 정신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무한양보 ▲무한대화 ▲무한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손, 이 후보가 승리하면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문기지기라도 맡겠다"며 "제가 승리한다면 대통합 정신에 따라 당내 모든 정파를 무한포용, 무한 배려할 것이며 상대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서 차별, 배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역전극 발판… 경선 흥행여지 남겨

■ 모바일 1차 투표 孫후보 승리 의미

"본선 경쟁력이 경선 결과 결정"

모바일(휴대전화) 1차 투표의 승리는 손학규 후보에게 대역전극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손 후보는 이번 모바일 투표에서 정 후보에게는 645표(3.0%포인트), 이 후보에게는 1천364표(6.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8번의 경선에서 패배했던 손 후보로서는 이번 1차 모바일 투표에서 비록 간발의 표차이긴 하지만 승리, 정 후보에게 빼앗겼던 대세론을 다시 찾아올 힘을 얻었다.

우선 손 후보의 모바일 투표 승리는 정 후보가 불법·부정경선 논란으로 상승세를 빼앗긴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 후보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통합신당 지지층과 관심층 내에서는 정 후보 측의 불법·부정선거 논란이 정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린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 측은 또 조직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바일 투표에서는 손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선거인단을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동원 능력이 경선 결과가 좌우됐다면 이번 모바일 투표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경선 결과를 결정지었다"며 "15만명 이상 남은 모바일 투표에서도 이 같은 투표 성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손 후보가 14일 경선에서 역전할 수 있느냐는 것. 신당 내에서는 일단 손 후보의 이번 승리로 경선판 전체가 흥미로워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흥행여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또 손 후보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보고 있다.

10일까지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할 경우 20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2,3차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은 17만명이나 되고 이 투표율 역시 이번 1차 투표율로 비슷한 70% 수준이 된다고 할 때 12만여명이 투표를 하게 된다.

즉, 수적으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선거인단이 남은 것이다. 더욱이 14일 실시되는 직접투표 지역에 손 후보 지지세가 많은 서울·경기·인천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손 후보의 계속된 지역경선 패배로 떨어져 나갔던 조직이 다시 가세할 가능성이 커졌다.

손 후보의 한 측근은 "그동안 정 후보의 경선 1위로 대선을 포기했던 당내 분위기가 손 후보의 승리로 대선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남은 경선은 손 후보의 역전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민주당 불법선거 이전투구 양상

문국현 반사이익 얻을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후보간 '불법선거' 공방 속에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장외에서 독자행보중인 문국현 후보가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당과 민주당이 이달중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대로 문 후보와의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양당은 '문국현 대안론' 부상 여부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문 후보의 우호그룹으로 분류되는 신당 의원은 "문 후보가 참신성을 갖고 있는 데다 CEO 출신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도 "신당 경선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돼 어떤 측면에서는 문 후보가 반사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경선후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는 최근 신당과 민주당 경선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자 "이미 내게로 후보 단일화가 됐다", "(범여권 의원) 50~60명이 내게 합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오는 14일 창당 발기인대회, 내달초 중앙당 창당 등의 신당 창당 로드맵을 갖고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당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가 탈락할 경우 친노 그룹의 문국현 신당 합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나돌고 있다. 일부 친노 인사들이 문 후보측과 물밑 접촉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범여권 대선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우선 창당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독자행보를 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민주, 호남 자민련 될라"

김민석 후보

김민석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9일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체성의 중요 축의 하나인 조순형 후보가 사퇴하고 당이 경선 파행과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에서 대역전극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세력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민주당을 지키고 미완의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선 파행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박상천 대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대표를 떠나 조 후보가 사퇴한 뒤 그를 두고 당에서 나온 언급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조 후보가 제기한 것은 당의 공정성과 관리능력 등에 대한 문제인데 그 가운데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급매
국도변
♣나주·남평역 인근
♣남향투자 최적지
♣22,353㎡ (7,000평)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법인 M&A(분할 합병)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062) 226-6300 FAX:(062) 943-2244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분양면적 : 205평서 414평까지
◉분 양 가 : 상담 후 결정
◉본택지의 특성◉
1. 접근성이 용이함 - 동광주IC에서 30분거리
2. 정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명소등이 근거리에 위치 (추월산, 담양리조트, 죽녹원, 담양호, 가마골 생태공원 등)
4. 투자가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함 서구 남구 경지정리된 농지(대토용)
◉광산구 우산동 농지 구함-비행장 맞은편(약2,000평)
◉관리지역 토지 구함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관내농지 평수에 관계 없슴)
◉묘지구함 : 1,000평 이상 (함평나산 / 나주노안 봉황 금천 다도 / 장성)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원룸,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公務員 1800여명 올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9級 공무원 완전對備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학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 수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mdgosi.co.kr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1월1일 사전예약접수 중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공무원 이론반 7개월 완성 (음악수업 - 대학 캣리도)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완성 (인문/사회 개설)
2009년대비 세무직 대학졸업 세무직 단독반 이론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 (1개월 완성)
기술직 단독반 농업직/토목직/건축직 소방직/전산직/보건직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